

배포일시	2019. 8. 8. (목) 15:00 (총 5매)		보도시점	2019. 8. 8. (목) 17:00	
담당부서	기상청 기후정책과 외교부 기후녹색협력과 농촌진흥청 작물재배생리과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	담당자	과장 이은정 팀장 최인택 과장 오명규 과장 김기현	전화번호	02-2181-0392 02-2100-7859 063-238-5250 042-481-4176

IPCC, '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' 채택

- 토지 변화가 극한현상(폭염, 호우, 가뭄 등) 빈도와 강도 증가 초래
 -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정책 등의 효율성 향상 강조

□ '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(IPCC, 의장 이회성)*'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0차 총회에서 '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**'의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을 채택했다.

*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(IPCC,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)

** 영문명: IPCC Special Report on Climate Change, Desertification, Land Degradation, Sustainable Land Management, Food Security, and Greenhouse gas fluxes in Terrestrial Ecosystems'

- 이번 특별보고서는 토지가 식량과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기반이며,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23%를 차지(2007~2016년 기준)하여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작성되었다.
- 특히, 특별보고서의 집필진으로 명수정 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위험, 그리고 도시, 작물, 산림 등 토지의 중요성을 다루는 데 이바지했다.
- 이번 총회에는 약 120개국 350여명이 참여하였으며, 우리나라는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, 이은정 기상청 기후정책 과장(교체 수석대표), △기상청 △외교부 △농촌진흥청 △산림청으로 정부대표단(총 8인)을 구성하여 참가했다.

□ ‘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’의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은 **4개 부문(A~D)***으로 구성되어 있다.

- **A 부문**에 따르면 토지의 변화는 △극한현상(폭염, 호우, 가뭄 등)의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, 기후변화는 △생물다양성 △식량체계 △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, 앞으로 그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.
- **B, C, D 부문**은 식량 손실 줄이기,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과 같은 정책의 효과를 설명하고, 지역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정책 효율이 향상되는 것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.

* 4개 부문(A~D) (상세 설명은 붙임 참조)

- A: 온난화된 세계에서 사람, 토지 그리고 기후, B: 적응 및 완화 대응 방안
- C: 이행 가능한 대응 방안, D: 단기적 조치

□ 요약본은 앞으로 다양한 정책 결정 시 유용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며, 장기적으로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.

- 또한, 우리나라 대표단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‘토지 황폐화 중립(LDN*)’이 요약본에 강조되도록 주도적으로 활동했다.

* Land Degradation Neutrality: 황폐화된 토지를 조림 등을 통해 복원하고, 추가 황폐화를 막아 전 세계 토지황폐화 증가를 멈추게 하자는 개념

□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특별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**10월 하순, ‘전문가 토론회(포럼)’**를 개최하여 공유할 예정이며,

- 디자인 편집을 거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(IPCC) 누리집과 기상청 기후정보포털(www.climate.go.kr)에 게재될 예정이다.

□ 김종석 기상청장은 “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데 있어 토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. 이번 특별보고서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”라고 말했다.

□ 붙임: ‘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’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주요 내용

【 A. 온난화된 세계에서 사람, 토지 그리고 기후 】

- 토지는 식량, 물 등을 제공하여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중요한 기반으로 기능하며, 기후시스템에 있어서도 그 역할이 중요
- 농업, 산림, 기타 토지 이용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23% 차지
- 산업화 이전 대비, 평균 육지표면 기온 상승(1.53℃)은 전지구 평균 표면(육지 및 해양) 온도 상승(0.87℃)보다 약 2배
- 기후변화는 생물다양성, 인류의 건강, 식량체계를 악화시키며, 그 정도는 미래에 커져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의 위기에 직면할 것
 - 위험 수준은 지구온난화 정도뿐만 아니라 인구, 기술발전 정도, 소비행태 등에 의해서도 결정
- 토지의 변화는 극한현상(폭염, 가뭄, 호우 등)의 빈도, 강도, 지속시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.

【 B. 적응 및 완화 대응 방안 】

- 토지에 기반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은 지속가능 발전과 여러 사회적 목표 달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함.
- 사막화 방지를 위한 활동은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에 기여하며, 생물다양성 감소를 중단시킬 수 있음.
-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는 토지 황폐화 예방 및 감소, 토지 생산성 유지, 토지 황폐화에 대한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.

- 온난화를 1.5℃ 또는 2℃미만 수준에서 억제하기 위해선 토지기반 기후변화 완화 정책과 조림, 산림 파괴 방지, 바이오에너지 등을 통합한 토지이용 정책 추진 필요

【 C. 이행 가능한 대응 방안 】

- 정책 및 추진체계에 대한 적절한 설계는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, 상호 보완적인 기후-토지 정책은 자원의 절약, 생태계 복원 지원 등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.
- 식량 손실과 음식 낭비를 줄이거나, 식습관에 영향을 주는 등 식량 체계에 대한 정책은 식량 안보와 탄소 저배출을 강화하며,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뿐만 아니라 사막화 및 토지 황폐화를 감소시키고, 공공 건강 증진에도 기여
- 정책 추진 전반(결정, 평가, 이해, 감시)에 대한 지역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정책 효율을 향상시킴.

【 D. 단기적 조치 】

-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, 사막화, 토지 황폐화, 식량 안보를 다루는 단기적 조치는 사회, 생태, 경제적 이익을 가져옴.
- 온실가스 배출의 빠른 감축은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감소시키지만, 즉각적으로 기후 완화 및 적응을 하지 않는다면 악영향은 점점 증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은 저하될 것임.